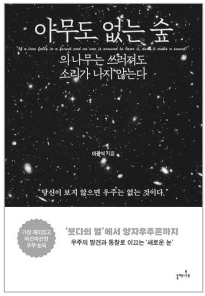


붓다의 별에서 양자우주론까지 ‘우주 통찰’

아무도 없는 숲의 나무는 쓰러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광식 지음



29살에 출가해 6년 동안 고행하던 신타르타는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좌정한 채 깊은 명상에 들었다가 새벽녘 동쪽하늘에 떠오르는 ‘밝은 별’(明星)을 봤다.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어 ‘붓다’(깨달은 자)가 됐다. 이때 남긴 계승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깨닫고 난 뒤에는 별이 아니다/ 사물을 좇아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정물(無情物)도 아니다”

‘붓다의 별’은 무엇이었을까? 이광식 우주·천문 과학 분야 저술가는 “부처님이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별’은 행성인 금성이거나 정말 별인 시리우스 중 하나일 것이 거의 분명하다”면서 “이 어마무시하게 광활한 우주에 한낱 별만지로 이루어진 인간이 맞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까. 사랑만이 생과 사, 시공을 초월하는 유일한 거니까”라고 생각을 확장한다.

저자는 신간 ‘아무도 없는 숲의 나무는 쓰러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에서 지구, 태양계, 별, 은하·블랙홀, 인간과 우주 등 6개 장(章) 63개 이야기로 우주를 통찰한다. ‘붓다의 별’에서 양자 우주론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신간 제목은 18세기 영국 경험론 철학자 조지 버클리가 한 말에서 따왔다. 이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만이 실체이며, 지각하지 못하는 것의 실체가 없다’라 의미를 품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당신이 우주를 보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빵에서 원자 개념을 도출한 데모크리토스와 ‘섬우주론’을 주장한 철학자 칸트, ‘빅뱅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 등 각각의 퍼즐을 통해 ‘우주란 무엇인가?’를 탐구해온 인간의 장대한 역사를 그려낸다. ‘농수각’(龍水閣)이라 이름 붙인 개인 관측소를 만들었던 실학자 홍대용과 일식 예보를 일각(一晝15분) 틀리게 해 세종으로부터 공장을 맞은 이천봉, 조선 만의천문역박서 ‘칠정산외편’을 편찬한 이순지 등 조선시대 ‘우주 덕후’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로 눈길을 끈다.

1759년 3월 헬리옌성을 관측해 기록한 ‘성변측후단자’와 1604년(선조 37년) 10월부터 7개월에 걸쳐 ‘조선왕조실록’에 130차례 기록한 ‘케플러 초신성’ 등 우리의 앞서나간 천문기록에 대한 이야기기도 새롭다. 한국의 ‘원조 별지기’ 다석 류영모와 수도승 출신 독소니언 망원경 발명자 존 돕슨은 별과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아하는 지를 보여준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90년 2월 태양계를 벗어나는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렸다. 이때 찍힌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The Pale Blue Dot)에 불과했다. 티끌 같은 지구에서 아득한 우주공간을 바라보는 인간은 자연 신을 찾는다. 최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최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7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무는 우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머무는 우주인들에게 “우주 속 인간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1968년 12월 달 궤도에서 ‘지구 돈이’ 사진을 찍으며 성경 창세기를 낭독한 아폴로 8호 우주인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글 한번 한번마다 국내 최초 천문잡지 ‘월간 하늘’을 발행했고, 강화도로 귀촌해 ‘원두막 천문대’를 운영하는 저자의 우주에 대한 사랑이 배어있다. 저자에게 우주는 ‘산’이자 ‘사랑’이다. 저자는 사라 윌리엄스의 ‘한 늙은 천문학자가 그의 제자에게’로 책을 마무리한다.

“...내 영혼이 비록 어둠 속에 잠길지라도 완전한 빛 가운데서 떠오르리라./ 나는 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들메나무·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정의의를 배반한 판사들(한스 페터 그라베르 지음, 정연순 옮김)=법원은 정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가? 이 책은 그런 의문을 품은 이들을 위한 기록이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학교수인 저자는 각국의 사례를 통해, 판사들이 억압적 정권의 악랄한 정책을 알거나 자주, 쉽게 집행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의의 배반한 판사들’이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존재임을 경고한다. 〈진실의힘·2만7000원〉

▲RNA의 역사(토머스 R. 체크 지음, 김아람 옮김)=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생명의 핵심은 DNA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RNA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유전 정보 전달자를 넘어, RNA가 생명 현상을 조율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임이 밝혀지면서 생물학과 의학, 생명공학 분야의 중요한 열쇠로 떠올랐다. 이 책에서 토머스 체크는 RNA의 복잡한 작용 원리를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다. 〈세종서적·2만3000원〉

▲죽은 다음(희정 지음)=‘일하다 병든 사람들’을 기록해온 작가 희정이 이번엔 ‘죽음’의 세계로 눈을 돌린다. 직업병, 자살, 참사, 고독사 등 죽음을 둘러싼 현실에 주목한 저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염습실에 들어선다. 장례 현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며, 산업화된 장례 문화와 달라진 가족 구조 속에서 애도



와 장례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다. 〈한겨레출판·2만2000원〉

▲어쩔지 나만 알 것 같은 역사(배승호 지음)=광해군의 아들, 폐세자 이지는 강화도에 위리안치된 뒤 가위와 인두로 땅굴을 파 탈출을 시도했지만 사흘 만에 붙잡혔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락산 ‘옥류동’에서 그 사건을 되짚는다. 방방곡곡 바위에 새겨진 글씨와 비문을 따라가며 역사의 흔적을 찾아 나선 건 전문 연구자가 아닌 역사 애호가다. 바위글씨에 매료된 그는 전국을 누비며 사료를 모았고, 그 속에서 잊힌 이야기들이 다시 살아난다. 〈푸른역사·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고양이가 사료를 아드득 까드득 (권민경 지음)=나는 개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우지. 그러니까 날 닮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동물의 권리와 존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단순히 동물에 대한 애정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섬세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그려낸다. 〈쉬는시간·1만2000원〉

▲첫차를 타는 사람들(김숨 지음, 강혜진 그림)=우리가 없으면 이 도시는 엉망이 될 거야! 해도 뜨기 전, 6411번 버스를 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경비원 나성호 씨, 조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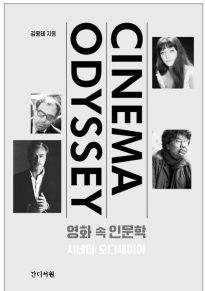
이옥란 씨, 미화원 김정아 씨-.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다. 사회의 ‘투명 인간’이라 불릴 만큼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조명한 기록이다. 〈노란상상·1만6800원〉

▲심대를 위한 지리 교과서 속 세계 분쟁 이야기(한병관 외 4인 지음)=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세계 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청소년 지리 교양서다. 역사·정치·경제가 얹힌 분쟁의 배경을 지리적 시선으로 설명하며, 그 땅이 왜 중요한지를 쉽고 흥미롭게 보여준다. 지리를 단순한 공간 지식이 아닌 통합사회의 핵심으로 바라보게 한다. 〈팜파스·1만5800원〉

고다르·왕가위·봉준호...감독들의 미학적 사유를 보다

영화 속 인문학

김윤태 지음



영화만큼 다양한 해석을 요하는 예술 장르는 없다. 영화에는 서사와 연기, 기술 등 다채로운 영역들이 결부되고 감독의 철학이 투영된다.

대중의 일상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 영화는 단순한 소비로만 끝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끝없이 소환되고 재해석됨으로써 미학적 사유와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그동안 영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오늘날은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로 영화를 해석하는 경향이 일반화됐다. 인문학을 통해 들여다보는 영화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

고, 이후 제작될 영화를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올해는 영화가 탄생한지 150년이 되는 해다. 영화를 통해 인문학을 바라보고 나아가 사회 해석학을 바라보는 책이 출간됐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가 펴낸 ‘영화 속 인문학-시네마 오디세이아’는 장뤼크 고다르와 왕가위에서 크리스토퍼 놀란과 봉준호까지를 아우른다.

저자는 지난 2018년 홍콩중문대학에 머무른 적이 있다. 홍콩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인데 홍콩은 미장센이 가득한 도시이며 맛집이 많은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이다. 저자는 홍콩과 홍콩 영화를 좋아하며 이번 책도 상당 부분 영화로 맺어진 홍콩과의 인연이 모티브가 됐다.

홍콩 감독 왕가위는 혼자 영화를 보는 시간을 즐긴 만큼 외톨이였다. 영화의 본질이 인간의 고독일 만큼 그는 ‘아비정전’의 장국영, ‘중경삼림’의 금성무와 양조

위 등등을 통해 고독을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책은 ‘질문’, ‘미래’, ‘권력’, ‘자유’ 등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매개로 그것에 연계되는 영화를 분석하고 조망하는 방식으로 기술돼 있다.

‘탐욕과 자본주의’를 다룬 ‘우리 시대의 질문’에서는 네르너 헤어조크의 ‘아귀레’, 올리버 스톤의 ‘월스트리트’ 등을 소개하며 ‘계급과 불평등’에서는 봉준호의 ‘기생충’,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을 주 텍스트로 한다.

‘억압된 본능’을 다룬 ‘권력은 어떻게 인간을 통제하는가?’에서는 스탠리 큐브릭의 ‘롤리타’, 헤닝 갈슨의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을 다루며 ‘지식과 권력’은 밀로시 포만의 ‘뺨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벨라 타르의 ‘사탄 탱크’를 이야기한다.

이밖에 우주 개발과 SF 영화, 코로나 이후 사회를 전망하는 영화, 저항과 비판을 조종화한 작품 등에 대한 저자 특유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간디서원·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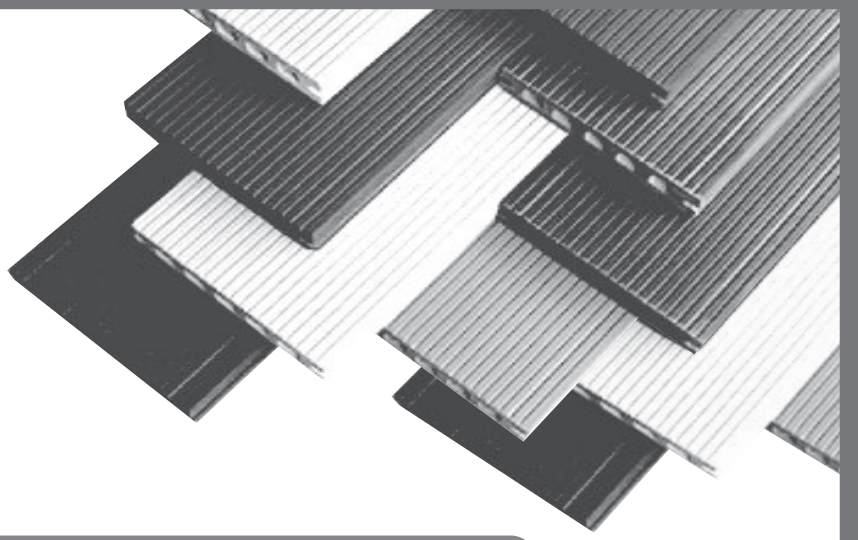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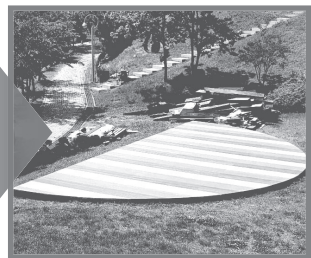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